



2026 VISION

혼혼한 구역, 함께 키우는 아이들

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[전도서 4장 9절]



가정

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



중일교회 가정사역부

성경이야기

안녕하세요, 친구들! 혹시 잘못했을 때 괜히 조용해지고 숨고 싶었던 적 있나요? 장난감을 망가뜨렸거나, 거짓말을 했을 때 “혼나면 어떡하지?” 하면서 마음이 콩닥콩닥 뒹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엄마 아빠에게 가기가 무섭기도 하죠.

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.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하고 나서 너무 무서워졌어요. 그래서 사무엘에게 “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! 우리가 죽을까 봐 무서워요!”라고 말했어요. 사람들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.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했을까요? “두려워하지 마라!”라고 말했어요. 그리고 “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!”라고 이야기해요. 이 말은 “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”는 뜻이에요.

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. 우리가 “하나님, 제가 잘못했어요” 하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. 또 사무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기억하라고 말해요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예요.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. 그래서 우리는 무서울 때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해요.

친구들,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.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“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고,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래요!”

중일교회 가정사역부

